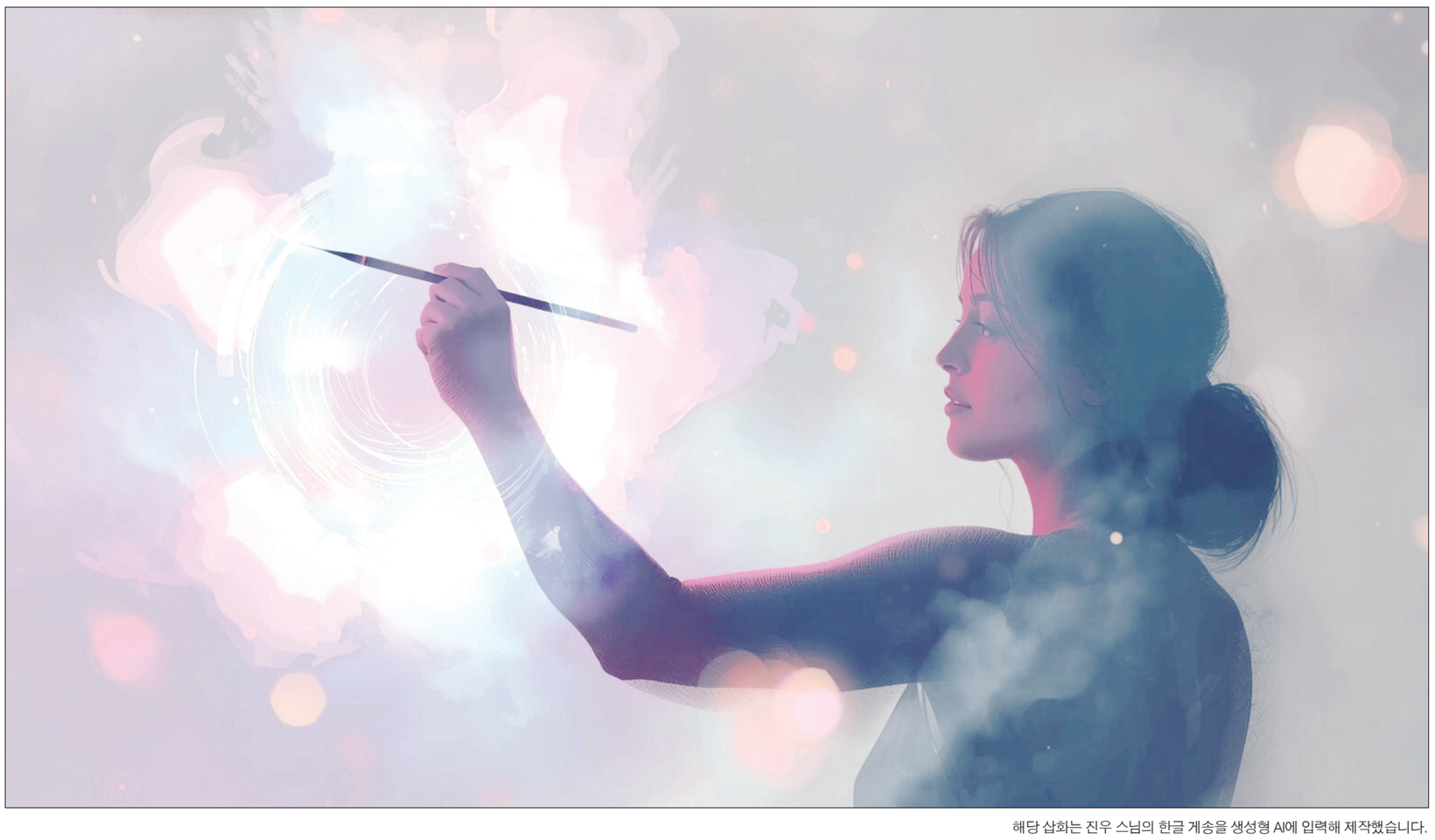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Weekly 선명상 46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한줄 요약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욕심을 부린 만큼 성공하기도 하지만, 성공한 만큼의 실패 또한 언젠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니 명심하고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성공이 있어 실패도 있다

욕심 부리기에 성공과 실패 경험
성공은 실패라는 그림자 함께해
성공한 만큼 실패도 항상 수반돼
매사 연연 말고 욕심 업식 끊길



해당 삽화는 진우 스님의 한글 게송을 생성형 AI에 입력해 제작했습니다.

[오늘의 명상]
삶이란 허공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고
물위에 금을 긋는 것과도 같다네.
모든 것 결국 공(空)으로 돌아갈진대
미련을 떼지 못하는 습(習)이 안타깝구나.

욕심을 부리면 욕심을 부린 만큼 성공하거나 또는 실패합니다. 욕심을 부린다는 것은 욕심을 부린 만큼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확신은 과거 또는 전생의 경험 즉, 업식(業識)이 마음에 잠재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조건으로 더욱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성공하고 어느 때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겠으나, 대개의 사람들은 단순히 운이 없다고 치부하거나 남의 탓을 하며 화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이유 없는 무덤이 없고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손등과 손바닥의 관계와도 같습니다. 손등이 있기 때문에 손바닥이 있는 것처럼, 성공이 있으므로 실패가 있고, 실패가 있으므로 성공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욕심이란 어떤 무엇을 이루기 위해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인간이 욕심을 부려 생각을 하고 마음을 낸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이뤄지게 되고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은 실패라는 그림자를 항상 안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인과적(因果的)으로 보면, 한 번 성공하면 한 번 실패하게 되고 열 번 성공하면 열 번의 실패가 기다리고 있으며, 크게 성공하면 크게 실패할 때가 오고 더 크게 성공하면 더 크게 실패할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해가 뜨면 반드시 져야 하고, 낮이 있으면 반드시 밤이 오기 마련이며, 해가 계속 뜰 수도 없지만 해가 계속 질 수도 없고, 밝은 대낮이 계속될 수도 없지만 어두운 밤이 계속 될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인과란 때가 되면 반드시 번갈아 나타나는 법칙입니다.

따라서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욕심을 부린 만큼 성공하기도 하지만, 성공한 만큼의 실패 또한 언젠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니 명심하고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해는 저절로 뜨게 되는데 굳이 해 뜨라고 밤새도록 애쓸 필요가 없고 해는 저절로 지는데 굳이 해 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화를 낸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매사에 연연(戀戀)하지 않고 불법(佛法)에 대한 지극한 신심(信心)만 있으면, 성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옆에 머무르게 되고, 실패라는 모습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인과의 법칙 따라 생로병사(生老病死), 성주괴공(成住壞空), 생주이멸(生住異滅) 하는데 욕심의 업식(業識) 따라 각자 스스로 마음만 분주할 뿐이니, 마음을 여여(如如)하게 편안히 하려면 기도와 참선, 보시와 정진을 통해 삼독심(三毒心, 탐욕·성냄·망상)의 업(業)을 멸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의 명상]
모든 일은 실제가 힘든 것이 아니라
힘들다고 생각하는 내 마음이 힘든 것이다.
인연 따라 움직이는 모습 그대로 믿으면[信心]
결코 끄달림 없는 평화로운 마음이어라.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것은 자명합니다. 특히 불교를 믿는 불자들의 바람은 단순합니다. 불보살의 가피력(加被力)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 달라는 염원의 기도입니다.

불전을 놓고 기도비를 내고 등을 켜고 천도를 하고 시주를 하는 등은 대부분 염원을 성취하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경우, 소위 기도축원대로 성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보면 특정한 목적을 이루게 해 달라는 경우에는 성취되는 확률이 높고, 반대로 예기치 않게 원하지 않는 것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을 잘 되게 해 달라거나 시험에 합격하게 해 달라, 자식을 낳게 해 달라, 병이 낫게 해 달라는 등의 기도는 이뤄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중생의 업이란 바라는 만큼 이뤄지게 되어 있으나 또한 이룬 만큼 바라지 않는 것이 생겨나는 것이 업의 속성입니다. 즉 성공한 만큼 실패하게 되어 있고 기쁜 만큼 슬프게 되어 있으며 즐거운 만큼 괴롭고, 행복한 만큼 불행한 것이 인과의 속성이고 업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태어난 만큼 죽어야 하고 건강한 만큼 병이 들고 젊은 만큼 늙어야 하며 생겨난 것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진리입니다. 다만 때를 달리할 뿐입니다. 아무리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도 머리로는 알아듣는 듯하지만 결국 마음과 가슴으로 못 받아들이고 마는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만큼 업이란 두텁고 단단합니다.

인과(因果)의 도리를 여실히 알아 반야(般若)와 진공(眞空)을 깨닫는다면 욕심은 더 이상 생기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괴로운 과보(果報)도 생겨나지 않게 됩니다. 욕심이 생기면 생길수록, 원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취하고 성공할 수는 있으나 그에 따른 혹독한 괴로움의 과보 역시 똑같이 생긴다는 것을 깊이깊이 알아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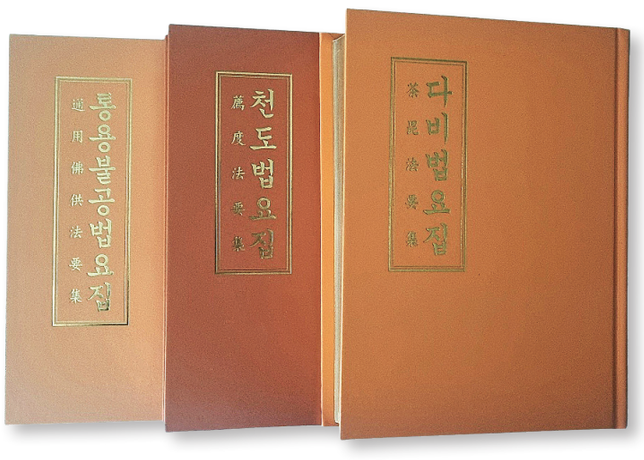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부처님의 법은 무엇을 이뤄 성취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을 성취하려는 욕심을 없애기만 하면 이미 성취되어 있고 이미 이뤄져 있다는 것을 여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보시(布施)와 시주(施主)는 내가 바라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 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연 따라 오고 가는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으로 뺏기고 잃고 사라지게 되는 아픔의 과보가 생기게 되니, 내 것이라는 상(相)을 없애기 위해 미리 내보내는 보시행(布施行)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괴로운 과보를 받지 않고 마음을 한없이 편안해질 겁니다.

사찰에 보시하고 시주하는 본래의 목적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 역시 똑같습니다. 기도와 보시, 참선과 정진은 나를 편안케 하는 도깨비 방망이가 될 것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불교계 최고 통일 禮敬儀式集
의식법요집



〈불교의식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며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수행〉

『통용불공법요집』『다비법요집』『천도법요집』은 불교의식들을 한데 모아 책으로 편찬한 불교의식집이다.

그동안 선지식들이 남긴 뛰어난 불교의식집이 많았으나, 시대 변화 속에서 일부가 단순화되거나 형식적으로 흐르는 경향도 있었다.

의식법요집은 사찰의 현실적 어려움과 신도들의 간절한 신심을 바탕으로, 여러 큰스님들이 전해온 기도법과 전통 의식을 재정리해 신도들의 삶에 희망과 용기, 신심을 불어넣을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한 책이다.

다비법요집 (1,445쪽) 150,000원 | 천도법요집(853쪽) 100,000원 | 통용불공법요집 (885쪽) 100,000원

- 불공신앙, 영혼천도, 사자신앙, 소재신앙, 세시풍습을 종합한 의식법요집
- 출재가를 아우르는 예불, 독경, 기도, 공양 등 의식을 집대성한 의례의식집
- 시대의 획기적인 변화와 정례화된 한국 불교의 뿌리를 공고히 한 편찬서

보급처 | 사단법인 대한불교교종 출판사 TEL : 031-291-8414 H·P : 010-8653-3216

양산 신흥사 대광전과
벽화의 가치 조명 학술대회

양산 신흥사 대광전은 17세기 조선 불교미술의 흐름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특히 불전 내부에 그려진 벽화는 우리 미술사에서 보기 드문 독보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이러한 대광전과 벽화의 도상적 특징, 제작 배경 그리고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에 대해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자리를 함께하여 학술적 논의와 교류의 장을 빛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양산 신흥사 주지 호법 합장

일 시 | 2025년 12월 19일 (금) 13:00~17:00
장 소 | 양산문화예술회관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
주 관 | 경주대학교
후 원 | 경상남도 양산시 영축총림 통도사



시 간	내 용
	사회 : 조수현 경주대학교 교수
13:00~13:30	개회식 및 기념촬영
13:30~13:55	기조강연 국가유산 확립에 따른 사찰 문화유산의 역할과 중요성 (최응천 전 국가유산청장, 동국대학교 석좌교수)
13:55~14:20	주제 1 양산 신흥사 대광전의 건축사적 의미 (오세덕 경주대학교 교수 / 토론 : 박대성 경상남도 문화유산위원)
14:20~14:45	주제 2 양산 신흥사 대광전 불상의 조각사적 의미 (송은석 동국대학교(WISE) 교수 / 토론 : 심주완 불교중앙박물관 종무관)
14:45~15:00	휴식
15:00~15:25	주제 3 건축적 공간성과 회화적 조형성이 만나는 지점: 신흥사 삼관음보살 벽화 의미 (김미경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감정위원 / 토론 : 유경희 국립익산박물관 학예연구사)
15:25~15:50	주제 4 건축 속에서 완성되는 벽화: 신흥사 대광전을 중심으로 (이승희 국립순천대학교 하슈연구교수 / 토론 : 이용윤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15:50~17:00	종합토론 발표자, 토론자 전원 (좌장 : 김정희 원광대학교 명예교수)
17:00	폐회식